

우유와 단골손님

서울금복국교 양호교사
김 춘 애

오늘 만난 나의 단골손님 암전이 기옥이, 장난꾸러기 영기는 겨울방학동안 부쩍 키가 자라 있었다. 방학식날 더부룩 했던 머리들이 오늘따라 단출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명절날 못지않게 깔끔스러워 보인다. 아직 남아있는 운동장 구석의 잔설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너머 오늘은 봄이 한 걸음 다가선듯하다. 비교적 부유층의 자녀들이 다니던 강남의 학교에서 이곳 금호동의 산동네로 부임 한지도 어느덧 일년이 되어 간다. 생활환경으로 인한 지역차가 크게 느껴져 처음엔 당혹감이 컸지만 점차 양호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곳이었다. 이곳에서의 나의 일과중 하나는 점심시간이며 꼬마 단골손님들을 만나는 일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황 영기 왔어요.」

「응- 영기 왔구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빵과 우유를 스스럼없이 집어 들고는 너무나 만족스럽게 먹어댄다.

몇년전부터 가정이 불우한 극빈아동 11명에게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의 혜택을 주고있는 것이다. 처음 만났을때 쭈뼛거리고 눈치보던 아이들에게 인사법을 가르치고 거리감을 없애고자 정을 쏟으니 표정이 나날이 밝아지고 행동도 자연스러워져 갔다.

「지금의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

다. 훌륭하게 커서 너희도 어려운 처지의 아동을 보게들랑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아이들과 애길하자면 내 댄엔 쉬운 말로 격려하려 하지만 늘 어른의 얘기가 되고마는 것이나 아닌지 의문이었다. 그후론 빵과 우유를 다 먹고난 뒤에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장난까지 치고 가는 여유를 보여 11명이 있다간 자리는 늘 형편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꼬마 단골손님에게 있어선 우유란 최대의 건강의 자원이 아닐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곤 다음날은 또 즐겁게 맞아진다. 이 작은 헌봉의 우유 속에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요구되는 칼슘·인 및 각종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110원이란 작은 돈으로 손쉽게 얻을수 있는 다른 식품의 값어치와는 비교가 안되니 말이다. 내가 자랄 때만해도 구경하기 힘들었던 우유였는데 이제는 슈퍼나 구멍가게 어느곳엘 가도 구입할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든다. 앞으로 더욱 싸져서 서민들도 하루 여러잔의 우유를 부담없이 마실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굳것질은 즐기지만 우유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우리학교의 여러 아동들에게도 우유급식의 좋은 점에 대해 계몽하고 더욱 권장하여 그들이 늘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율해는 더욱 힘써야겠다.